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글·사진 신경린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팔공산 정기 아래 우뚝 솟은 돌부처

경상북도 경산시와 대구광역시 경계에 자리해 등산을 좋아하는 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찾는다는 팔공산. 이 산이 사랑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영험의 상징이라 불리는 '갓바위 부처님' 때문이다. 팔공산 남쪽의 봉우리 관봉이 '갓바위'라 흔히 불리고, 불상 머리에 올려져 있는 돌이 마치 갓과 같다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됐다. 이 돌부처는 통일신라시대 불교지식을 전파한 것으로 유명한 원광법사의 수제자 의현대사가 어머니를 여읜 후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됐다고 전해진다.

높이는 5m를 훌쩍 넘기며, 외모는 둥글고 풍만해 탄력이 있고, 눈꼬리는 약간 치켜 올라간 형태. 굵고 짧은

❶ 회색 암벽에 둘러싸인 불상,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인상적이다

목에는 불교의 수행법을 의미하는 3줄의 주름, '3도(三道)'가 표시돼 있다. 어깨는 넓고 반듯해 당당하고 건강하지만, 가슴은 평판해 신체의 형태는 둔중하다. 특히, 오른손 끝이 땅을 향하는 '향마촉지인'과 유사한 손 모양은 마치 석굴암의 본존불을 연상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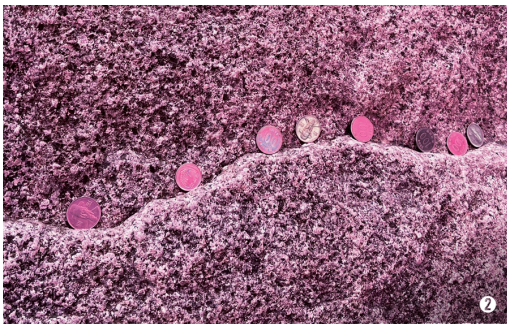
부처님을 찾는 3가지 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불교에서 3도는 번뇌를 극복하는 3단계의 수행 절차를 의미한다. 그래서일까. 갓바위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 또한 3갈래로 나뉘어 있다. ▲대구 도심에서 가까운 능성동 집단시설지구에서 관암사를 거쳐 오르는 길 ▲팔공산 동쪽의 약사암 길 ▲갓바위 관리를 책임지는 선본사 길이다. 이중 갓바위 부처님을 가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선본사 길. 선본사 일주문에서 거리로는 800m, 시간으로는 왕복 50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코스인데다가, 등산로도 낮고 평이해 많은 등산객이 찾는다. 이 등산로 옆으로는 300개가 넘는 석등과 소원을 비는 촛불 수백개가 줄지어 있어 가뜩이나 아름다운 풍경에 빛을 더한다.

그렇게 정상에 오르면 병풍과 같은 암벽에 둘러싸인 갓바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거대한 불상을 밑에서 바라보면 파란 하늘이 회색빛의 돌과 만나 영험한 기운을 내뿜고, 또 그 뒤를 돌아보면 푸른 초록빛 팔공산의 산세가 눈 앞에 펼쳐진다.

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주말, 공휴일이면 갓바위 부처님을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멋있는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갓바위 부처님에게 건강이나 시험 합격 등 어떤 소원이든 성심으로 기도하면 하나씩은 꼭 들어준다는 속설 때문이다. 불상 근처 가득한 촛불과 근처 바위에 수북이 붙어 있는 동전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부처의 관이 학사모와 닮아 입시에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린다.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말이 있듯,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는 이에게 부처님도 감동하여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청명한 하늘이 높게 떠오른 날,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드려보자. 그렇다면 당신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❶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알록달록한 연등

❷ 등산객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위에 동전을 붙여 놓았다

❸ 갓바위 등산길 입구